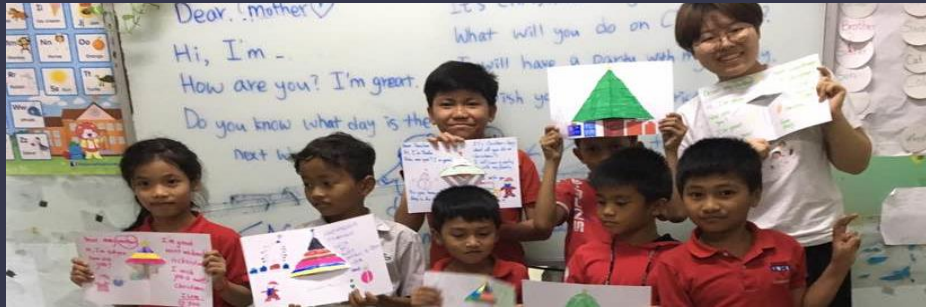


# 캄보디아 앙콜팀 12월 보고서

Cambodia Angkor team Dec report



# [ 목차 Contents ]



## 앵콜팀의 일상

YLC, YI, OPA, 크마에 클래스

지난 8년, 다시 가슴이 뛰다.  
KB 국민은행, KB 헤브론 센터



## 아띠프로젝트

페인트, 벽화



# [ 목차 Contents ]



## 홈스테이

씨엠립, YMCA차일드케어센터

## 씨엠립 투어

톤레삽, 앙코르와트, 펄스트리트



## YLC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30일..?

# [ 목차 Contents ]



양산 YMCA 중학생  
PEACE YOUTH 여행단

박정은씨 생신  
박회장님, 선물증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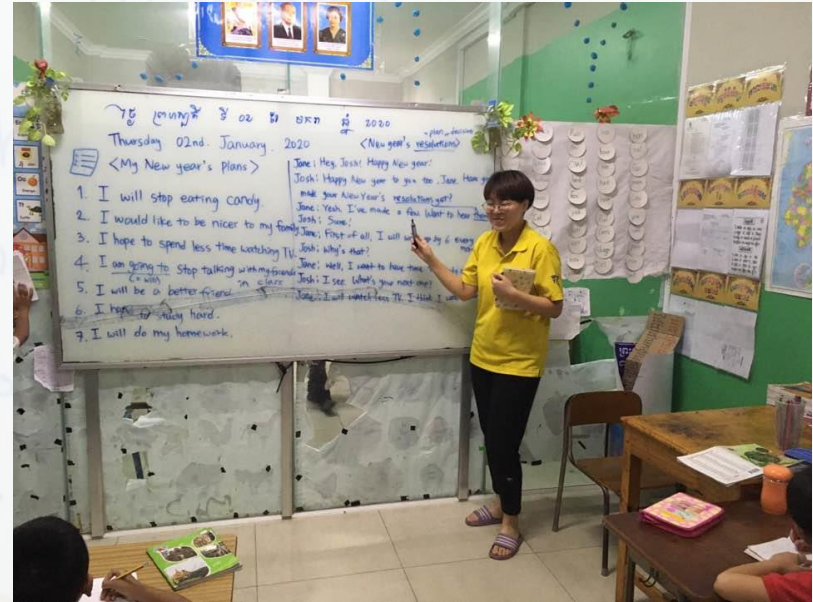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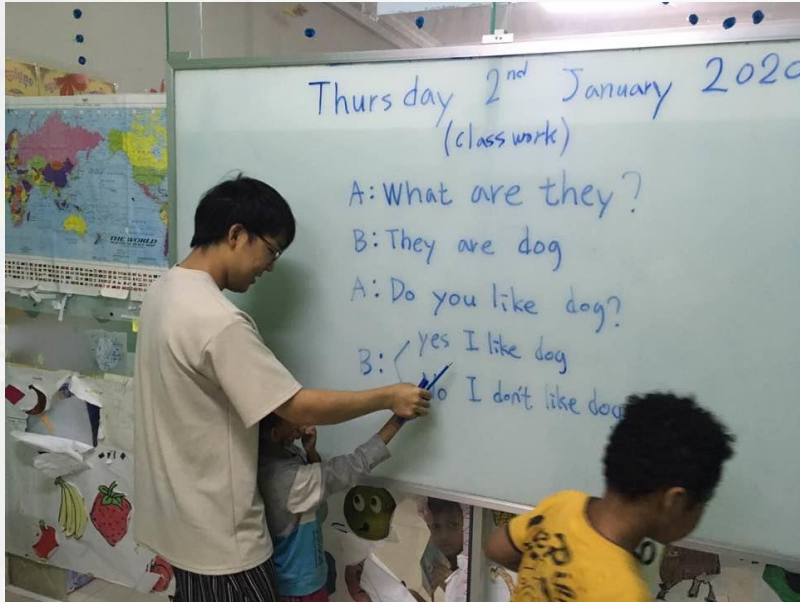
12월을 마무리하며  
고민과 소감

# 앵콜팀의 일상

YLC YI OPA  
KHMER CLASS



# [ YLC ENGLISH CLASS ]



YLC에서 각 수준별 영어 수업을 맡아 매일 진행하며 YLC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업 진행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준비하며, 아이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활동입니다.

# [ YLC ART CLASS ]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영어수업과 만들기 수업으로  
크리스마스 입체 카드 만들기와  
크리스마스 편지를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 OPA EXERCISE ]



격주로 주말 이른 아침에  
OPA담당자, OPA봉사자들과  
같이 OPA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크메르어로 대화도  
해보고 건강을 위한 체조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체조하는 시간 동안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시기에 이른 아침이라  
피곤했지만 우리도 어르신 들과  
같이 웃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 YI ROUTINE ]

YI에서의 첫 시작은 학생들과 같이 교실청소, 양치, 손 씻기, 아침 체조를 하며 하루를 엽니다. 특히나 아침 체조의 경우 체조를 통해 아이들이 더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업에 좀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어/크메르어 수업/수학 수업과 컴퓨터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점심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가장 신나하는 시간입니다. 앵콜팀은 아이들이 먹을 음식들을 나누고 혼자 먹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 [ YI ENGLISH CLASS ]



캄보디아에서의 영어는 한국과 다르게 회화를 좀 더 중점 두는 교육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어도 단어를 쓸 수 없거나 철자를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행맨게임, 영어단어 발견하기 등을 통해 좀 더 재밌게 영어 단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수업 시간외에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처음 영어 수업을 할 때부터 가장 큰 난관은 교실과 칠판이 하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불편함을 느꼈는지 어느 날 한 친구가 가방 안에서 준비한 보드마카와 지우개를 주며 벽에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걱정을 하던 한 부분이 없어졌고 아이들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YI COMPUTER CLASS ]

컴퓨터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포토샵에 있는 중요 몇 가지들의 툴 사용법들을 배운 이후에는 기본 수업 도안 주변에 스스로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도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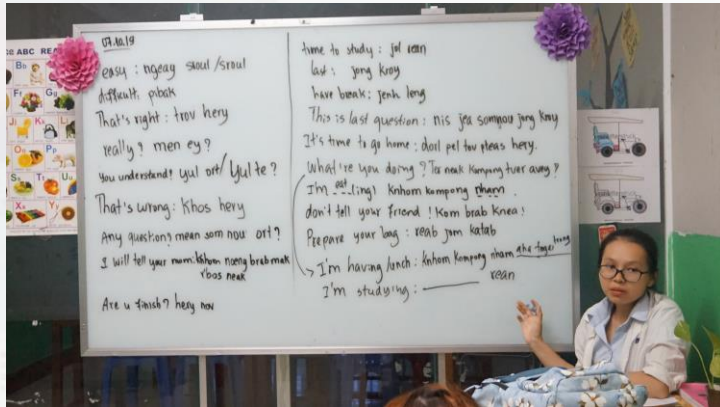


## [ YI PREPARE CHRISTMAS ]



YI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학생들과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눈사람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만들다 보니 학생들이 좋아하고 행여 무너지거나 부러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 [ KHMER LEARNING ]



PANHA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크메르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가셨다가 크메르 수업을 위해 오시는 PANHA 선생님



우리도 모든 일과가 끝나고 7시~8시 1시간 동안 배우는 크메르어 시간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PANHA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BBQ 뷔페집을 방문하여 캄보디아식 BBQ 뷔페를 먹었습니다.

지난 8년  
다시  
가슴이  
똥다

지난 8년, 다시 가슴이 똥다  
ឆ្នាំនេះ ៨ ឆ្នាំកន្លងមកនេះ បេះដូងខ្ញុំលោតសារជាថ្មីឡើងវិញម្តងទៀត  
Cambodia Heart Disease Children's Charity Gala Dinner  
ពិធីជួបជុំសំណេះសំណាលជាមួយគ្នាម្តងទៀតនេះបេះដូងទៅកម្ពុជា

KB 국민은행 구세군자선냄비본부 m



## [ KB 헤브론 심장병 센터 ]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은 지난 2012년부터 총 86명의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2014년 부터는 캄보디아 현지에 '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 ' 를 건립해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총 125명의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준 KB국민은행, 금융감독원, 구세군자선냄비본부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 [ 지난 8년, 다시 가슴이 뚫다 ]



이번 행사는 지난 8년 동안  
수혜 받은 가정을 초청해  
다양한 볼거리와 만찬을  
대접한 행사입니다.

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  
KB국민은행장,  
캄보디아 중앙은행 이사,  
한국구세군총사령관,  
헤브론심장센터 부원장,  
수혜자 80가정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 지난 8년, 다시 가슴이 뚫다 ]



저희는 이 행사에 봉사단원으로 초청받게 되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현지 봉사자들과 선물도 준비하고 안내와 행사 진행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 [ 지난 8년, 다시 가슴이 뛰다 ]



## [ 지난 8년, 다시 가슴이 뚫다 ]



행사가 끝나고 수혜자 분들을  
인솔하여 프놈펜 호텔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만찬 후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호텔에  
동행하여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불편한 곳이 없으신지 확인 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 KB사회협력부 식사 초대 ]



행사가 끝난 다음 날

국민은행 사회협력부 박상용 부장님, 김병재 차장님, 구세군 김홍수 사경관님께서  
행사 지원에 대한 감사와 라온아띠 격려차 대접해주신 저녁을 먹었습니다.

# 라운아띠 프로젝트

도서관 페인팅



## [ ATTI PROJECT ]



본격적으로 아띠 도서관 교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 교실 내부를 정리하고 벽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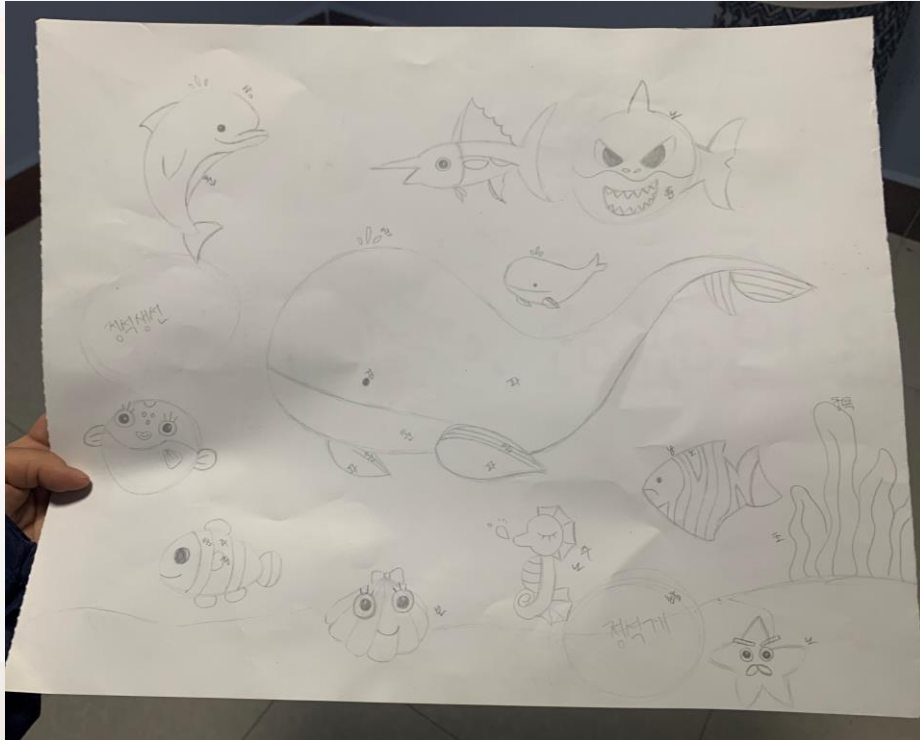


## [ ATTI PROJECT ]



바다 느낌이 나는 파란색으로 모든 벽을  
색칠하고  
에어컨도 설치하며 책을 읽기 편하게  
전등도 교체하였습니다.

# [ ATTI PROJECT ]



바다 속을 주제로 하여 도서관 이름도 짓고 벽화 도안을 만들고 물감을 구매하였습니다



# [ ATTI PROJECT ]



도안에 따라 밑그림을 그린 후 색칠 시작

## [ ATTI PROJECT ]



캄보디아YMCA 봉사자와 YLC 선생님들도 페인팅과 벽화 그리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벽화 작업을 하며 다시 한번 도서관의 이용과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 ATTI PROJECT ]



3일에 걸친 작업 끝에 도서관 벽화 완성!

기쁨의 다양한 포즈;;

# SIEM REAP

홈스테이  
여행



## [ SIEM REAP HOMESTAY ]



홈스테이와 씨엠립 YMCA 차일드 케어 센터 방문을  
위해 씨엠립으로 버스를 타고 무려 6시간을 달렸습니다.

## [ SIEM REAP HOMESTAY ]



저희가 홈스테이로 지낸 곳입니다. 캄보디아 중, 중하 층의 가정으로 캄보디아 현지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제공해주신 가정에서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매 식사가 즐거웠습니다.

# [ SIEM REAP PLANTING ]



홈스테이 가정의 농장에 방문하여 옥수수 심기를 도와드렸습니다.

# [ SIEM REAP YMCA CHILD CARE CENTER ]



씨엠립 YMCA가 운영하는 차일드케어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기관은 건물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환경개선이 필요하였기에 건물 외벽과 교실 내부에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 SIEM REAP YMCA CHILD CARE CENTER ]



색이 없는 정문 담장에 색을 입히고 누렇게 뜬 건물 외벽을 하얗게 칠 하였습니다.

# [ SIEM REAP YMCA CHILD CARE CENTER ]



교실 내부의 경우 모든 벽의 색이  
바라였고 하얀색으로만  
칠하기에는 아쉬워서 위는 하얀색  
아래는 초록색으로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SIEM REAP

여행 시작!



# [ SIEM REAP TONLESAB RIVER ]



톤레삽강에 방문하여 수상가옥을 구경하였습니다. 모든 집들이 3층 높이에 지어져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 SIEM REAP PUB STREET ]



씨엠립에 방문한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씨엠립이었지만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크리스마스를 자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 SIEM REAP ANGKOR WAT ]



아침 해돋이부터 시작하여 앙코르와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앙코르와트, 바이운사원, 앙코르 톰 등 여러 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 싶은 정도로 거대한 건물이었고 섬세한 작업들도  
있어 더욱 신비로웠던 앙코르와트였습니다.

# [ SIEM REAP ANGKOR WAT ]



## [ SIEM REAP SWIMMING POOL ]



홈스테이가 끝난 후 묵었던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

YMCA 12월 31일



# [ CHRISTMAS PARTY YMCA ]



YLC에서 12월 30일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트리도 꾸미고 캐롤을 부르며 선물도 주고 맛있는 식사도 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양산YMCA 중학생

Peace Youth 여행단



## [ 양산YMCA Peace Youth 여행단 ]



양산 YMCA에서 중학생 봉사단이 왔습니다. 10일의 기간동안 프놈펜과 씨엠립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며 프놈펜에서의 활동기간동안 저희 앵콜팀이 활동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 [ 한국YMCA Peace Youth 여행단 ]



YLC 에서는 노력봉사로 교실 페인트칠을 진행하였습니다. YI에서는 교육 봉사로 아이들에게 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체육시설을 빌려 야외활동을 하는 등 아이들과 뛰어놀며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박정은씨 생신

박회장님 생신 축하



## [ PKAY BIRTHDAY ]



정은단원의 생일을 맞아 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각자 준비한 생일 선물도 주고 생일인  
정은단원이 고심하여 선택한 치킨집에서  
한턱 쏘는 날입니다.

소감  
고민





## [ 박정은 얼마 안 남았다! ]



라온아띠를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새삼 느끼고 있다. 이제 정말 남은 날을 카운트 할 수 있을 만큼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처음에 각오를 떠올려 봤을 때 캄보디아에 스며들어 살다 오기를 바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성공한 거 같다. 완전히 로컬의 삶을 살았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외국인으로서 한 마을에서 현지 분들과 어울려 잘 살았다. 길을 가다 먼저 밝게 인사할 건네 오는 이웃 분들을 마주할 때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곳을 떠날 때는 아쉬움이 더 클 것 같다. 이번 달까지 활동 잘 마무리해서 라온아띠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박정근 눈이 감긴다 ]



12월이 되고 나니 내가 캄보디아에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의 여유가 이제야 생겼는데 벌써 남은 일이 몇 일 안 남았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한 가득이다. 남은 날들도 후회 없는 삶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 [ 박재희 후회는 없다~! ]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2주가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난 4개월 동안 그 시간들을 겪어오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팀생활을 했던 것도 처음이고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 될 것 같다. 라면 물도 못 맞추던 내가 지금은 닭볶음탕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용돈 관리도 제대로 못했던 내가 지금은 400만원이 넘는 돈을 관리하고 있다. 여러모로 부족했던 나에게 조언해주고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고맙고 귀국 후에도 지금처럼 미워도 함께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오정석 남고 싶은 가? ]



귀국일이 다가오고 있다... 11월만 해도 더 오랜기간 남아 활동을 진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귀국일이 다가오며 이런 마음들이 애매해 지는 것 같다. 남아서 캄보디아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과 한국에 돌아가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정확히 50대50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 남은 기간들이 너무 아쉬우면서도 집에 간다는 기쁨이 공존하고 있어 희한한 경험을 하며 남은 활동을 마무리 할 것 같다.

## [ 정유선 더 남고 싶다 ]



홈스테이 전 후로 내가 한국에 돌아 갈 시간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이 느껴져 슬픔에 잠겨 있었다. 단순히 한국에서의 미래만을 위한 삶이 힘들었다는 이유가 아닌 이곳에 있는 동안 생활했던 팀원들, 기관 현지인들, 아이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기억 속으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여기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었다.

# 12월 보고서 끝!

Thank you. 어쨌든

